

헌신의 동기, 의미, 방법

[성경본문] 로마서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대해 교훈하는 대표적인 성경구절이다. 본문은 헌신의 동기와 헌신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잘 교훈한다. 저는 이 구절을 종종 증거하였지만,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보자.

첫째로, 헌신의 동기는 무엇인가? 헌신의 동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다. 헌신의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을 경험하였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의 앞부분에서 이제까지 증거한 복음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소식이다(롬 1-3장). 구원은 사람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는다.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기에 부족하였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출생하셨는가 하는 이유가 있고 왜 사람이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이치가

있다. 복음의 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증거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큰 은혜에 근거하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역만분지 일이라도 보답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헌신의 동기가 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즉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이 될 수 없다. 실상 우리는 죄인이며 죽어야 마땅했던 자들인데,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뭐 그렇게 큰 가치가 있겠는가? 헌신은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할 것이 아니다. 또 실제로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모른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피를 흘리셨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주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바쳤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주 예수님을 위해 무슨 희생을 했는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엄숙한 교훈을 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둘째로, 헌신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교훈하였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獻身)이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제사제도 중에 번제에 담긴 뜻이기도 하였다고 본다. 번제는 일차적으로 속죄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지만(레 1:4), 또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은 온전한 헌신이어야 하고 그럴 때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본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할 분이시다. 모세는 신명기 6:4-5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교훈하였다. 주 예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마 16:24).

헌신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몸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재능과 목소리와 힘, 우리의 시간과 돈,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포함한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온전히 불태워 드렸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는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못 박혀 고통을 당하셨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할 더 큰 이유와 동기가 생겼고 가장 좋은 모범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사업을 위해 거룩하고 온전하게 바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상,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선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숭고한 일은 없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이 일은 선하고 가치 있고 숭고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에게 그의 뜻을 부탁하셨다. 그의 뜻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를 이루는 일이요 또 다른 이들의 구원과 성화를 돕는 일이요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며 이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참된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교훈하시는 것이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참된 예배라고 말하였다. 예배는 예배 의식보다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실상 예배보다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 기독교는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고 삶이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를 섬기며 그의 뜻과 계명대로 사는 삶인 것이다.

셋째로, 헌신의 방법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헌신의 방법으로 세 가지를 말한다. 첫째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은 항상 불경건하고 죄악되다. 옛날에도 그러하였고 오늘날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본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도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고 교훈하였고(요일 2:15-16), 야고보도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교훈하였다(약 4:4).

우리가 헌신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부귀와 영광을 사랑한다. 우리는 그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은 육신의 즐거움을 사랑한다.

우리는 그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유행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경우가 많다. 우리가 헌신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헌신하려면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마음’이라는 원어(누스 νοῦς)는 ‘생각’이라는 뜻이다. 사람은 그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바르고 건전해야 한다. 우리는 구원받은 지금 구원받기 전의 세상적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생각은 무지하고 허무하고 최악된 옛날의 생각으로부터 진리의 지식을 가진 거룩하고 의로운 생각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세상적 욕심이나 가치관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하려면 우리의 생각의 규범이 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교훈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신구약성경에 충족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행위의 기준, 생활의 기준은 성경뿐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알기를 위해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은 이단사설들이 들끓는 시대이다. 이것은 말세의 징조이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묵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규범으로 이 책을 주셨기 때문이다.

헌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었듯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난을 감수하며 전도자의 직무를 완수하였

듯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듯이(딤후 2:4),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교훈대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의 생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현재의 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최고의 목표로 하며 살고 있고 내일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며 남은 여생에 무엇을 가장 큰 목표, 가장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살려 하시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과 돈과 정력을 첫째로 무엇을 위해 사용하려 하시는가? 여러분이 생을 마치려 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헌신은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이며 또 택한 자들의 구원과 성화이며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건립과 진행이며 세계복음화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고 자신의 인격과 삶을 거룩하게 단장하며 또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며 다른 이들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며 권면하고 또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며 교회 생활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이며 세계복음화와 참된 교회들의 건립이다. 우리의 첫 번째 관심도 비슷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 권면을 받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자. 이를 위해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행하며 순종하자. 그것보다 귀한 일은 없다.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교회 봉사도 하자.